

## ■ EU, 오존층 파괴물질 조기 감축 추진

### ○ EU는, 6월 1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s의 조기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를 시행기로 합의함

- HCFCs를 규제하는 1994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유럽 각료회의와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 새로운 규제안의 주요 내용

- MEPs<sup>1)</sup>가 처음 제시하였던 전면적인 금지시한인 2007년을 2015년으로 연기함
- HCFCs를 사용하는 기존의 냉장, 냉동, 에어컨시설의 경우 2010년부터 금지됨
- 신규 냉장시설의 경우에는 HCFCs 사용이 2002년 7월 1일부터 금지됨
  - 유럽 각료회의는 초안에서 2003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했던데 반해 유럽집행위원회는 2001년부터 조기에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렇지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도 HCFCs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됨
- 농약인 Methyl Bromide, 오존파괴물질로 새로 규정된 Bromochlorometahne와 CFCs, halons, Carbon Tetrachloride, 1,1,1-Trichloroethane, Hydrobromofluorocarbons 등의 판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어 신규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음

### ○ 향후 전망

- 재활용 HCFCs의 사용기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각료회의의 양해 하에 조기 금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임
  -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재활용 HCFCs의 금지시기는 2009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시사점

- 향후 EU 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이 담긴 제품의 판매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보다 효율적이고 원천적인 대응을 위해, EU 내의 민관 연구기관과 대체물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 준 학(02-3669-4097, hiemjhki@shinbiro.com)

1)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의 약자로 현재 벨기에 25명, 덴마크 16명, 독일 99명, 그리스 25명, 스페인 64명, 프랑스 87명, 아일랜드 15명, 이탈리아 87명 룩셈부르크 6명, 네덜란드 31명, 오스트리아 21명, 포르투갈 25명, 핀란드 16명, 스웨덴 22명, 영국 87명 등 총 626명이 5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임